

인터뷰 (Interview) 사진



인터뷰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주로 기

자가 취재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과 가지는 회견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은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 기업의 CEO, 교수, 연예인, 미담(美談)의 주인공인 보통 사람 등 정보와 이야기거리를 가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다. '인터뷰 사진'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면 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진기자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전직 사진기자다. 그는 늘 취재 현장에서 유쾌한 입담으로 주변 동료들을 무장해제 시키고는 했다. 특유의 억양과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재밌는 이야기로 사진기자 3대 구락로 회자됐다. 취재원과 관계도 그랬다. 잠깐의 탐색전을 거친 뒤에 스스로없이 취재원과 친숙해지는 이가 그였다.

특히 인터뷰 대상인 연예인 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이런 그의 낙천적 성격과 친화력을 잘 보여준다.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처음에는 좋아하

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춘기 딸을 위해 모가수 인터뷰에서 짬을 내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사진을 올려놓고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본 뒤로는 인터뷰할 때마다 당대에 잘 나가던 연예인(배용준, 서태지, 비, 김희애, 장윤정 등)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때 그는 차렷하고 찍는 전형적인 기념사진은 피했다고 한다. 스스로없이 어깨동무해 달라거나, 팔짱을 끼고 찍는 등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다. 이 '자연스러움'은 그가 인터뷰 사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한다. 공감되는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인터뷰 사진을 잘 찍는 요령에 관해서 물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었다.



Interview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현재 재단 이사진이 10명입니다. 그중 당연직 6명을 빼면 4명인데, 앞으로 그중 3명을 탈북민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인성(63) 원불교 특임 부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단 운영에 탈북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재단 운영 방침에는 탈북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만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고 일부 탈북민이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생각이 반영되었다.



남북하나재단 정인성 신임 이사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재단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삼 기자

이때의 자연스러움이란, 화자(話者)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 사진 속의 화자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표정에 더해 손동작 등을 함께 찍은 상반신 사진은 독자 입장에서 화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한 편집기자가 지면 편집 방향에 맞춰 사진을 고를 수 있도록, 사진기자는 정면과 좌·우 측면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

화자의 표정은 미소를 띤 밝은 모습이 좋다. 카메라에 익숙한 연예인들은 셔터 소리만 들어도 컷마다 표정과 동작을 바꾼다.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는 일반인의 경우는 어색하고 긴장된 표정을 짓기 일쑤다.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런 사진을 찍을 건데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시선 처리할 곳을 정해놓은 뒤 화자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얼추 자연스러운 표정의 인터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인터뷰 사진을 잘 찍는 그만의 노하우다. 연출 사진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부득

이한 경우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취재기자 혼자서 인터뷰하는 때가 많은데, 이때 그는 카메라를 건네주며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꼭 조언했다고 한다. 첫 번째 최대한 자연스러운 포즈를 요구하고, 두 번째 입을 다물고 있는 사진은 찍지 말 것, 세 번째 얼굴의 배경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머리색과 같은 검은색 배경, 벽의 모서리 등 사진에서 얼굴 뒤에 사선이 그려질 수 있는 배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되새겨 봐야 할 주의사항들이다.

최근 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정인성 신임 이사장의 인터뷰 사진은 그런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진이다.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과 손동작이 자연스럽다. 사진 속 화자의 배경 처리도 깔끔하다.

인터뷰는 글, 사진의 공동 작업공간이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제나 핵심을 꼬집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에 걸맞은 화자의 표정과 몸동작 등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진에 담아낸다면 더욱 짜임새 있는 인터뷰 지면을 만들 수 있다. ♣